

도, 소비자 상담 분석... 피해구제 활동 강화

작년 1만5394건 상담... 2021년 대비 14.2% 감소 ·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 · 의류 · 섬유 · 이동전화서비스 순

전북도는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와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2년도 소비자 상담 총 1만5394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전년(1만 7981건) 대비 14.2%(2587건) 감소했다.

가장 많은 상담 품목은 유사투자자문(608건), 의류·섬유(401건), 이동전화서비스(313건), 휴대전화(284건), 세탁서비스(225)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로는 상위 세 품목은 계약 관련, 휴대폰·스마트폰 및 세탁 서비스는 '폴질·사후관리(AS)' 관련

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대비 소비자 상담 품목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봉지편(1,533.3%), 실손보험(146.3%), 화장품 세트(125.9%), 항공여객운송서비스(102.0%), 기타식품류(86.8%) 등이었다. 봉지편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의 피해 다발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상담이 급증한 품목으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0.1%(5,906건)로 가장 많았고, 군산 14.9%(1,759건), 익산 14.3%(1,689건), 완주 4.0%(4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1.1%(7,865건)로

남성 48.9%(7,519건) 보다 약간 높았다. 여성 소비자는 의류·섬유(311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남성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341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7.2%(3,989건)·50대가 24.6%(3,618건)·30대가 21.3%(3,134건)·60대 14.9%(2,189건)·20대 7.8%(1,144건) 등의 순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각 연령대 상담 비중 모두 전국 단위 동일 연령대 상담 비중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 6,627건(43.1%), 전자상거래 4,469건(29.0%), 기타 1,659건(10.8%), 전화판매 846건(5.5%), 방문판매 751건(4.9%), 기타 통신판매 642건(4.2%), 티브이(TV)홍쇼 핑 363건(2.4%) 등의 순이다.

이중 국제온라인거래와 방문판매 방식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각 167%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및 법 위반 사업자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홍보·정보 제공 강화, 이동상담실 운영, 인터넷소싱몰 감시활동 등 다양한 권익보호 활동을 추진 계획이다.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경로당 다문화가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예방법을 포함한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주거 실태 온라인 조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 청년 대상... 내달 1일까지 조사 구체적 수요 파악 · 실효성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방안 마련 목적

전북도는 3월 1일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실태를 청년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컴퓨터(PC) 등 온라인을 통해 주거 실태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확대 추진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현재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흥부부와 만19~39세 이하 미혼청년이다.

조사내용은 임대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등 주거실태와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여부 등 3가지 항목이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나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URL(QR코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흥부부와 청년에 대한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구

체적인 수요 파악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만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용자 지원하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흥부부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흥부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차제출 시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차제출 시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등을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전국 공무원노조 힘 보탠다

도 공노조, 한노총 소속 공노조에 홍보대사 역할 협조 요청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전북에서 열리는 생활체육인 국제 종합체육대회인 '2023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가자 등록 등 홍보에 노조 차원 총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전국 시도,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위원장들이 21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 모여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홍보 행사를 가졌다. 특히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

은 대회 홍보물 기념품 등을 전달하고 각 지자체 노동조합에 3월 12일까지 참가자 모집 등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요청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에는 시도, 시군, 우체국 소방 교육청 등 전국에 조직망을 갖추고 있어 많은 국내외 참가자 모집에 청신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재 도청노조 위원장은 "마스터스대회는 경기 그 자체를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로 국내외 참가자



한국노총, 전국 시도,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위원장들이 21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 모여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홍보 행사를 가졌다.

들이 많아져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길 바란다고, "코로나19 이후 첫 치러지는 국제 규모 대회이자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5·18 민주화 운동 대국민 선언 '축사' 취소

전북도는 지난 19일에 열린 5·18 민주화운동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에 보낸 전북도지사의 축사를 공식 취소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애초의 행사 취지와 달리 진행되고, 지역 여론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발단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책자 수록용 축사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19일 공발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비롯, 공문사회, 특전사동지회 등이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5·18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5·18 행사의 취지가 벗어나 축사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중훈 경제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

코로나 이후 3년여만에 진행... 40여 명 참석

전북현안 대응 · 계획 설명 적극적인 협조 요청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직접 소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 격려를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간담회 재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 강화를 위한 이유도 있다. 만찬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중훈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및 지역 보좌관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훈 부지사는 인사말에서 "3년여 만에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됐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을 위해서 힘쓰고 행정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지역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조봉업 행정부지사, 순창 쉼랜드 등 현장행정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순창군 쉼랜드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찾아 현장 청취 및 시설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순창군 쉼랜드에 방문, 정화원 순창부군수로 부터 시설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위케어전 거점공간 조성 사업과, 전북 치유관광지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관련 사업 대상지를 둘러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자질없는 시설 공간 조성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홍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사당되지 않도록 순창군 치유관광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며, "타 기초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중간역할을 해 끌고 가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부지사는 적성면에 위치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겨울철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면에 이어... 전북지역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신호탄'

도는 가관별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한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실제 도시와 동일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현실의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분석하고 실험하는 기술로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주시와 협력해 도시공간, 하천 모니터링, 재난재해(태풍, 침수)를 예측하는 디지털트윈 전주를 구축한 바 있으며, 향후 도내 전 시·군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조성,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강국을 이끄는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합쳐 도내 산업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예정이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제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욱 교수

- ▶ 전북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토론에 변질 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회 권역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원, 단계 특강교수
 - KBS TV아침매일, MBC TV, JT, TBS코워킹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비성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서식 '365스피치어플리케이션'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강연, 방송, 시낭송, 시낭송 시 낭송, 시낭송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아)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